

군산 대야면 옛 주조장에 '활기'

막걸리 만들고... 발효빵도 만들고...

'추억뜨락' 서 6회 걸쳐 발효식품 체험프로그램 진행

지역주민·참가자들 관심·열기 매우 뜨거워

군산시가 농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추억뜨락' 주조장에서 발효식품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지난 8월부터 지난 8일까지 대야면 '추억뜨락'에서 총 6회에 걸쳐 발효식품 체험프로그램(막걸리 만들기, 발효빵 만들기)을 진행했다.

막걸리 만들기 체험은 막걸리에 관한 이론 강의와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 시음, 막걸리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돼 당초 20명 참가자 모집에 30명이 신청했다.

또, 빵 만들기 체험에도 32명 모집에 45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등 옛

주조장에서 진행되는 발효식품 체험에 지역주민과 참가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시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수탁 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과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민·관 중간 지원조직이다.

추억뜨락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대야면 중심지에 위치한 상징건물인 옛 주조장으로, 지난 2021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재의 추억뜨락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현재는 대야면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최영택 위원장)에 의해 관리위탁돼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야면의 오래된 주민들에게 추억과



군산시 대야면 '추억뜨락'에서 진행된 발효식품 체험프로그램. (사진=군산시청 제공)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운영선 센터장은 "이번에 진행한

발효식품 체험프로그램은 주조장이었던 지역 특성을 살려 추억뜨락을 활성화 시키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최영택 위원장은 "추억뜨락과 농산물 직매장, 해피타운 등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택 농기센터소장은 "앞으로 추진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군산시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있는 농촌지역의 공간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의해 2023년 신규사업으로 육산면, 임피면, 대야면 등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육구읍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농업인 재해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정력 집중

익산시 용안 송정마을, 농작업 안전교육·안전장비 지원

익산시는 농업인 재해예방 없는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육성을 위해 재해예방 안전교육과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용안면 송정마을을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난 6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민 21명을 대상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응급처치 및 구급함 관리, 농작업 진드기 매개 감염성 질환 예방, 온열질환 예방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및 스포츠 테이핑 방법을 소개하고 직접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이와 함께 재해안전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바닥 조명등과 고추도 반사 테이프를 설치했으며, 방재복 안전화 등 안전장비와 보조구 16종을 지원했다.

송정마을은 산후, 수확 등 하우스 자물이 많아 농작업 재해 노출이 큰 마을로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안전 실천을 통해 안전한 건강한 마을로 변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농업·농촌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는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 대상지인 용안면 송정마을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민 21명을 대상,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23 군산 희망복지박람회' 성료

복지 관련 홍보·전시

체험 등 프로그램 '큰 호응'

군산지역 복지의 대향연 '2023 군산 희망복지박람회'가 지난 8월과 9월은 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일준·홍용승)가 주관해 다시 군산 복지가 답이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종사자와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에 대한 홍보·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희망복지박람회와 함께 진행된 '제24회 사회복지 날' 기념식은 금빛초등학교 합창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20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박람회는 50여 개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각 분야별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으며 다양한 부스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또한, 각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QR코드를 현수막에 기입 운영했으며 실시간으로 군산희망복지박람회 행사가 유튜브로 방영됐다. 공연은 전라북도 문화예술팀의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색소폰 공연 제프릴의 버스킹 공연 퓨전국악밴드 차오를 공연 등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고 코로나 및 경제위기 등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다.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용승 공동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민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민들 가까이에 있음을 알고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민관이 함께 앞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의원 윤리 심사 도입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식)가 소속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에 돌입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배우자의 차량을 손과환 의원에게 대해 김영일 의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소속 의원 개인 가정사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군산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자세히 검토해 시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제258회 임시회가 끝난 직후인 8월, 윤리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의안건으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 심사의 건을 상정했으며, 회기 결정과 관련된 의원 출석요구 등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 심사의 건, 관련 의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해 심의했고,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에 대한 심문과 소명 발원 청취를 위해 2차 회의를 오는 18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AI 말벗·케어로봇 지원을 확대해 1인 취약계층의 상시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AI 말벗 로봇' 지원 확대

익산시, 1인 취약계층 상시돌봄 체계 구축 강화

익산시가 AI 말벗·케어로봇 지원을 확대해 1인 취약계층의 상시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말벗 기능이 포함된 AI 로봇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과 응급상황대처에 효과가 커 든 든한 안전망 역할이 기대된다.

시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비대면 돌봄서비스인 'AI 말벗·케어 로봇 지원'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힌 대기자와 신규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3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기기 제공 전에 전문인력의 대면 상담과 우울증 척도 검사 후 최종 결정된다.

AI 말벗·케어 로봇은 '다솜'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음성명령어를 시작으로 일상 속 대화가능하며 취향에 맞는 영상과 음악감상, 기상·취침·약복용시간 등 일정을 안내한다.

특히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낙상 등으로 인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장기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지하여 관계센터에 알림이 전송되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한다.

정현을 시장은 "AI 로봇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1인 취약계층의 고독사,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전북에너지서비스에 요금 인하 촉구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항의 차원

익산시가 최근 결정된 도시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주)전북에너지서비스에 요금 인하 검토를 요청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8일 오전 박경식 (주)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를 직접 만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정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있는 지역 산업체들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장 인상을 낮출 방법이 없다면,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부담을 완화할만한 대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익산시와 정읍시 2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다. 최근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적용

되는 이 회사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평균 8.2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메가줄(MJ) 당 2,554원에서 2,764원으로 증가한 수치다. 주택용 요금은 동결됐지만, 산업용 요금이 크게 올랐다.

박경식 대표는 "요금 책정은 전북도가 판매량 등 산출을 통해 연간 한 차례씩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판매량 부진이 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업단지 연료전지 활성화 등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체 경영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올라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력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축제 대규모 인파 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익산시가 대규모 방문객 참여가 예상되는 대표축제에 안전보증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서동축제'와 '전국노래자랑-익산시편' 등 대규모 행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현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장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이달 15일부터 개최 예정인 2023년 익산 서동축제와 16일 개최되는 전국노래자랑-익산시편의 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및 안전대책 전반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위원회는 다중이용에 따른 행사장 인파소요 예방대책, 안전관리 요원 배치계획,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소홀함 없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대책 일환으로 행사 개최 전에는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회 의견과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사업 접수

군산시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저울 철사에 인공적인 먹이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약(구,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지역을 확대해 접수 받는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대상지역을 올해부터 개정된, 육산면 쌍봉리, 개성면 운회리·발산리·통사리 일부까지 사업대상 지역으로 확대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시가 진행하는 사업유형은 벗짚꾼지와 보리·귀리·밀 경작 유형으로, 벗짚꾼지의 경우 벼수확 후 벗짚을 눈에 쫓아내 철새가 낙엽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리·귀리·밀 경작은 파종 후 계약만료일까지 수확하지 않고 먹이로 제공함으로써 철새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처를 제공하게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공모 접수

군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시가에서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안서 접수기간은 11월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군산시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7~19세 어린이·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제안서 공모주제는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군산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의 사회적 서비스, △기타 총 5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제안서를 작성한 후 공모기간 내에 시청 아동정책과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이메일(jhnl1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1차 서면심사(소관부서 검토)와 2차 스코어심사(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